

초점과 정보 구조에 따른 한국어 화자의 영어 억양 실현 양상*

Korean Speakers' Realization of Focus and Information Structure on English Intonation in Comparison with English Native Speakers

엄 혜 영** · 이 혜 숙*** · 김 기 호***

Um, Hye-Young · Lee, Hye-suk · Kim, Kee-Ho

ABSTRACT

Focus and information structure are closely related with the distribution of pitch accents. A focused word conveys new information and bears a pitch accent. A content word can usually get a pitch accent, but it can be deaccented if it is mentioned earlier in the discourse. In this paper, we test how English native speakers and Korean learners of English realize pitch accents according to focus and information structure of a sentence. The production experiment shows that English native speakers give a pitch accent to narrow-focused items, deaccenting all the other items of the sentence. For VP broad focus, native speakers give a pitch accent either to both the verb and its complement or to the complement only. On the other hand, it is found that Koreans give pitch accents to most content words regardless of focus and information structure. Moreover, the perception experiment confirms that Koreans' intonation patterns, which are not appropriate in terms of focus and information structure, may jeopardize listeners' comprehension. This paper shows that Korean speakers have little knowledge about focus and information structure for intonational realization, and that such notions should be applied to teaching of English intonation.

Keywords : focus, pitch accent, intonation, deaccenting, new/given information

1. 서 론

영어에서 문장의 단어는 초점을 받아 새로움(newness)이나 대조성(contrast)을 전달하며 이렇게 초점을 받은 단어는 피치 액센트로 표현된다 (Bolinger 1972; Ladd 1996에서 재인용). 한편 Ladd (1996)는 "...accentuation can be influenced by the relative informativeness of words or constituents in a sentence. For example, it is well known that accent tends not to

* 본 논문은 교육부의 '21세기 지식기반사회대비 고등인력양성사업 - Brain Korea 21 - 핵심 분야'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연구임.

** 명지대학교 교양학부

*** 고려대학교 영문과

be placed on elements that are repeated or 'given' in the discourse..." (pp.174-175) 라고 하면서 정보 구조와 액센트와의 관계를 설명한다. 즉 액센트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단어가 담화 상에서 이미 사용되었거나 단어가 지시하는 대상이 최근에 언급되었을 경우에는 액센트가 해지(deaccenting)된다는 것이다 (Terken and Hirschberg 1994, Ladd 1996).

초점은 일반적으로 협의 초점(narrow focus)과 광의 초점(broad focus)으로 구분하는데, 협의 초점은 개별 단어에 주어지는 초점을 가리키며 광의 초점은 개별 단어가 아닌 구성소 전체(the whole constituent)나 문장 전체에 주어지는 초점을 가리킨다 (Ladd 1996: 161). Birch and Clifton (1995)은 피치 액센트만으로 초점을 파악할 경우 협의 초점과 광의 초점간에 중의성이 생기는데 이때 문맥이 그 중의성을 해소한다고 한다. (1)과 (2)를 보자.

- (1) a. What did he do?
 b. What did he break?
 (2) He broke the vase.

(2)의 문장은 'vase'에 피치 액센트가 온 것으로 (1)의 두 질문 모두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데, (2)가 (1a)에 대한 답이라면 이것은 동사구 [broke the vase] 전체가 초점을 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한편 (1b)에 대한 답이라면 보어 [the vase] 만 초점을 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를 이와 같이 분석하는 것은 Selkirk의 초점 투사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

Selkirk(1984, 1994)는 초점을 통사 구조와 연관시켜 다음과 같은 초점 투사 원리(focus projection principles)를 제시한다.

(3) 초점 투사 원리 (Focus Projection Principles)

- (a) F-marking of the head of a phrase licenses the F-marking of the entire phrase.
 (b) F-marking of an internal argument of a head licenses the F-marking of the head.

이러한 초점 투사 원리와 초점이 피치 액센트로 표현된다는 가정에 근거하면, 술어구 전체에 광의 초점이 올 경우 술어의 보어만 피치 액센트를 받아도 되고 술어와 보어 모두 피치 액센트를 받아도 적합한 문장이 된다. 보어만 피치 액센트를 받아도 되는 이유는 초점 투사 원리에 따라 보어에 온 액센트 끝 초점이 술어에까지 투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술어와 보어가 모두 신정보라 할지라도 보어에만 피치 액센트가 와도 무방하다. 반면, 술어구 전체에 광의 초점이 오나 보어가 담화 상에서 이미 언급이 된 경우에는 보어가 액센트 해지되어, 술어 전체에 광의 초점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술어가 피치 액센트를 받아야 한다.

Selkirk의 이론을 바탕으로 Birch and Clifton (1995)이 실시한 지각실험에서, 원어민 청자들은 술어구 전체에 광의초점이 올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 술어와 목적어에 모두 피치 액센트를 주거나 목적어에만 주어도 비교적 적절한 대화로 판단하였다. 반면 대화문 중 질문에서

목적어에 해당하는 어휘가 이미 언급되었을 경우, 즉 목적어가 주어진 정보인 경우에는 답이 되는 문장에서 목적어에 액센트 해지가 일어나 술어에만 피치 액센트가 온 문장을 이미 언급된 정보인 목적어에도 피치 액센트가 온 문장보다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초점과 정보구조, 피치 액센트 사이의 관계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영어 원어민 화자들이 실제 발화에 있어서 이러한 초점과 정보구조를 억양에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또한 한국어 화자들의 경우, 이러한 초점과 정보구조를 반영하여 담화 문맥에 적절한 억양을 실현하는지 조사해 보고자 한다.

2. 실험 1 - 발화 실험

2.1 실험 문장

Birch and Clifton (1995)에서 택했던 방식을 본 실험에 도입하여 동일한 문장이 주어진 질문에 따라 다양한 억양을 갖게 되도록, 동일한 문장을 서로 다른 질문과 짝 지워 대화문을 구성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예문은 다음과 같으며 실제 실험에 사용한 총 50 개의 예문은 Appendix에 수록하였다.

- (4) Esther(She) won the marathon.
- (5) a. A: Who won the marathon?
 B: [**E**sther]_F won the marathon. (유형 1)
- b. A: Esther saw the marathon?
 B: No, she [**w**on]_F the marathon. (유형 2)
- c. A: What did Esther win?
 B: She won [**t**he **m**arathon]_F. (유형 3)
- d. A: How did Esther spend her Thanksgiving?
 B: She [**w**on **t**he **m**arathon]_F. (유형 4)
- e. A: Did Esther enjoy the marathon?
 B: Yes. She [**w**on **t**he **m**arathon]_F. (유형 5)

(4)의 문장을 (5)의 다섯 가지 서로 다른 질문과 짝 지워 동일한 문장에 서로 다른 억양 패턴 특히 피치 액센트의 분포를 보이도록 구성하였다. (5a-c)는 한 단어에 협의 초점이 오도록 한 대화문이며 (5d-e)는 술어구 전체에 광의 초점이 오도록 한 대화문이다. (5)에서 각 괄호와 'F' 꼬리표는 초점을 나타내고, 진하게 표시한 것은 액센트를 가리킨다.

(5a)는 주어에, (5b)는 술어에, (5c)는 보어에 협의 초점을 받으므로 각각에 피치 액센트가 부여되고 있다. (5d)는 술어구 전체에 광의 초점을 받는 경우이므로 Selkirk (1984, 1994)의 '초점 투사 원리'에 따르면 술어와 보어 모두에 액센트가 오거나 보어에만 액센트가 올 수 있다. (5e)는 술어구 전체에 광의 초점이 오나 목적어가 구정보로서 액센트 해지되어 술어에만 액센트가 부여된 경우이다.

2.2 실험 방법

Birch & Clifton (1995)에서 지각실험에 사용한 예문 중 한국인이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만한 단순한 문장으로 10 개의 예문을 선택하고 각 예문을 위 (5)와 같이 다섯 가지 상이한 질문과 짝지워 대화문을 구성하였다. 그런 다음 실제 녹음에 들어가기 전에 대화문이 자연스러운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에 참가하지 않은 한 원어민에게 감수를 받았다. 이렇게 구성된 총 50 개의 대화문을 섞어서, 피험자로 하여금 본 실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험자들이 대화문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녹음 전에 미리 전체 대화문을 읽어보도록 하였으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실험자에게 물어보도록 하였다. 대화문을 충분히 이해한 후 피험자가 질문과 응답을 실제 대화하는 것처럼 가능한 자연스럽게 읽은 것을 녹음하였다. 미국인 화자 5 명과 한국인 대학생 화자 10 명을 피험자로 삼았으며 녹음은 SONY DAT 녹음기와 SHURE SM58 마이크로 실시하였다.

2.3 실험 결과

2.3.1 원어민

Pitchwork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얻은 억양 곡선을 ToBI 전사 체계(The ToBI Annotation Conventions, Beckman and Hirschberg 1998)에 의거하여 분석하였다. 원어민 화자 5 명은 50 개 문장을 한번씩 읽어 유형별로 총 50 개 문장이 산출되었다. (5)에 제시하였던 유형별로 원어민이 실현한 피치 액센트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으며 위 (5)의 예측과 일치하는 피치 액센트 유형에는 음영을 부여하였다.

표 1. 원어민 화자들이 실현한 피치 액센트 분포

	S	V	C	빈도수(%)
유형 1	(L+)H*			50 (100)
유형 2		(L+)H*		50 (100)
유형 3		L*	H*	32 (64)
		(L+)H*	(L+)H*	13 (26)
			(L+)H*	4 (8)
			H*	1 (2)
			소 계	50 (100)
유형 4		L*	H*	29 (58)
		(L+)H*	(L+)H*	11 (22)
			(L+)H*	6 (12)
			H*	2 (4)
	H*	(L*)	H*	2 (4)
			소 계	50 (100)
유형 5		(L+)H*		49 (98)
			H*	1 (2)
			소 계	50 (100)

유형 1과 2의 경우 화자 5 명이 모든 문장에 대해 주어와 술어에 각각 H* 또는 L+H*를 부여하였으며, 유형 5에서는 총 50 개 문장 중 49 개 문장에서 술어에 H* 또는 L+H*를 부여하여 2.1에서 예상하였던 것에 100%, 100%, 98%로 일치하고 있다. 유형 3의 경우, 보어만 신경보가 되므로 보어에만 H*가 오는 경우와 술어에 L*, 보어에 H*가 오는 경우를 포함하여

72%가 예상하였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¹⁾ 유형 4의 경우는 술어와 보어가 모두 신정보이므로 모두 H* 또는 L+H*가 온 경우와 초점 투사 원리에 근거하여 H*가 보어에만 온 경우를 포함하여 92%가 예상하였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원어민 화자의 대표적인 억양 곡선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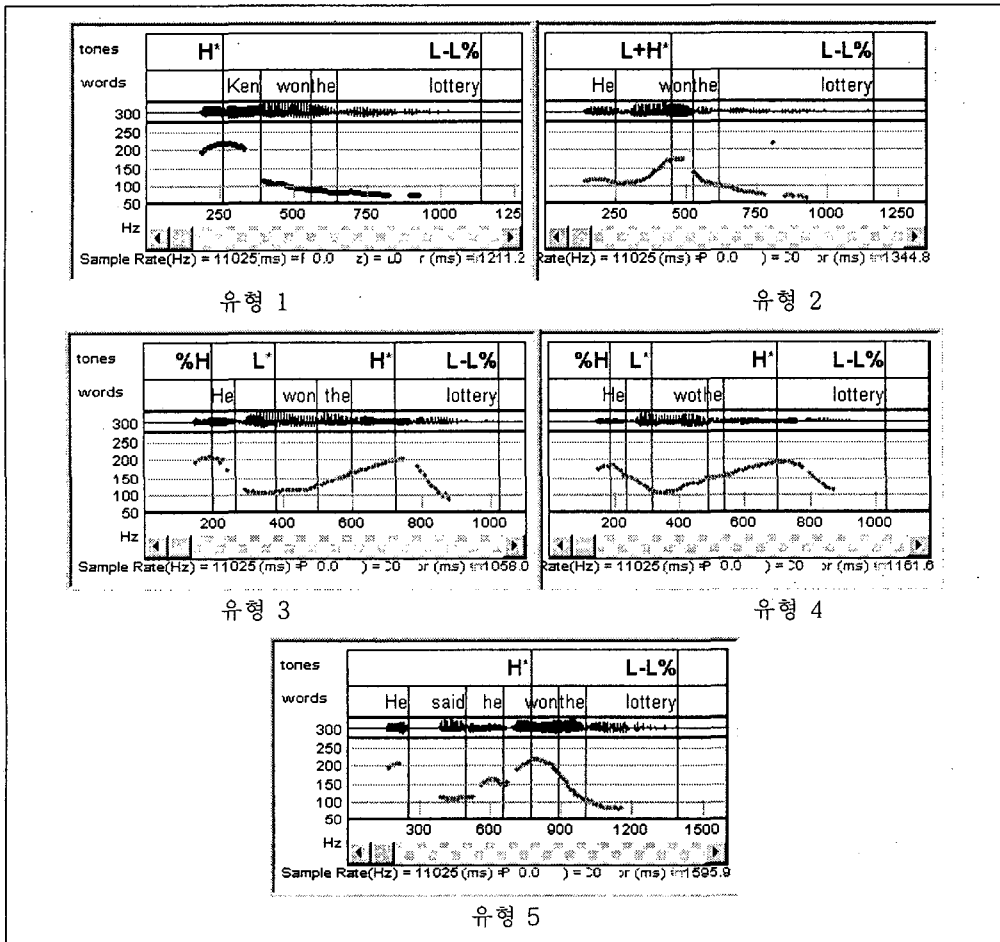


그림 1. 원어민 화자의 유형별 억양 곡선

그림 1을 살펴보면 유형 1, 2, 5에서 초점을 받는 항목은 차례로 H*, L+H*, H*의 피치 액센트로 표현되었으며, 초점을 받지 않는 어휘나 혹은 초점을 받으나 구정보인 어휘들은 모두 액센트 해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형 3의 경우, 보어만 신정보로서 이것이 초점을

1) Pierrehumbert and Hirschberg (1990:289-292)에 따르면, H*에 의해 부각된 항목은 담화 상에서 새로운 것으로 이해되는 반면, L*는 부각되지는 않지만 화자가 서술하는 항목이 아닌 경우에 (salient but not predicated) 또는 화자가 부각시킨 항목이 청자가 가진 서로 간의 믿음(mutual belief)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쓰인다. 즉 L*는 H*와 달리 청자가 이미 알고 있다고 믿는 항목을 부각시킬 때 사용한다. 따라서 L*는 구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받아 H*로 실현되고 있으며 술어에 L*가 오는 것은 뒤에 오는 H*를 더욱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형 4의 경우, 즉 술어구 전체에 광의 초점이 오고 술어와 목적어 모두 신정보인 경우에 술어에 L*, 목적어에 H*를 주고 있다. 이는 유형 3에서와 같이 술어에 오는 L*가 목적어에 오는 H*를 더욱 부각시키는 기능을 하며, Selkirk의 '초점 투사 원리'에 따라 목적어에 H*가 음으로써 술어구 전체에 초점을 투사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유형 4의 경우 앞서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술어와 보어에 모두 H*를 부여한 것이 전체의 2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술어와 보어가 모두 신정보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가능한 발화이다. 이러한 억양 곡선은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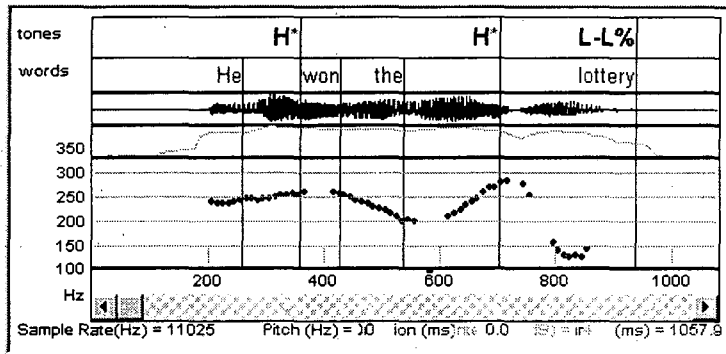


그림 2. 원어민 화자의 억양 곡선-유형 4

한편 유형 3에서 술어와 보어에 모두 H*를 부여한 것이 전체의 26%를 차지하는데 이 경우 술어가 구정보임에도 H*를 준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설명할 방법이 없다.²⁾

2.3.2 한국인

한국인 화자 10 명은 50 개 문장을 두 번씩 읽어 유형별로 총 200 개 문장이 산출되었다. 이를 원어민과 마찬가지로 ToBI 전사 체계에 의거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어 화자의 발화 실험 결과, 한국인 화자는 원어민 화자와 달리 대체로 초점 및 정보 구조와는 상관없이 모든 내용에 피치 액센트를 부여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대표적인 억양 곡선을 보면 다음과 같다.

2) 이 경우 퍼센트 비율이 높은 것은 한 화자가 일관되게 술어와 보어를 H* H*로 구현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 화자 개인의 독특한 발화인지 다른 화자에게도 종종 나타나는 일반적인 유형인지 규명하기 위해 더 많은 원어민 피험자를 대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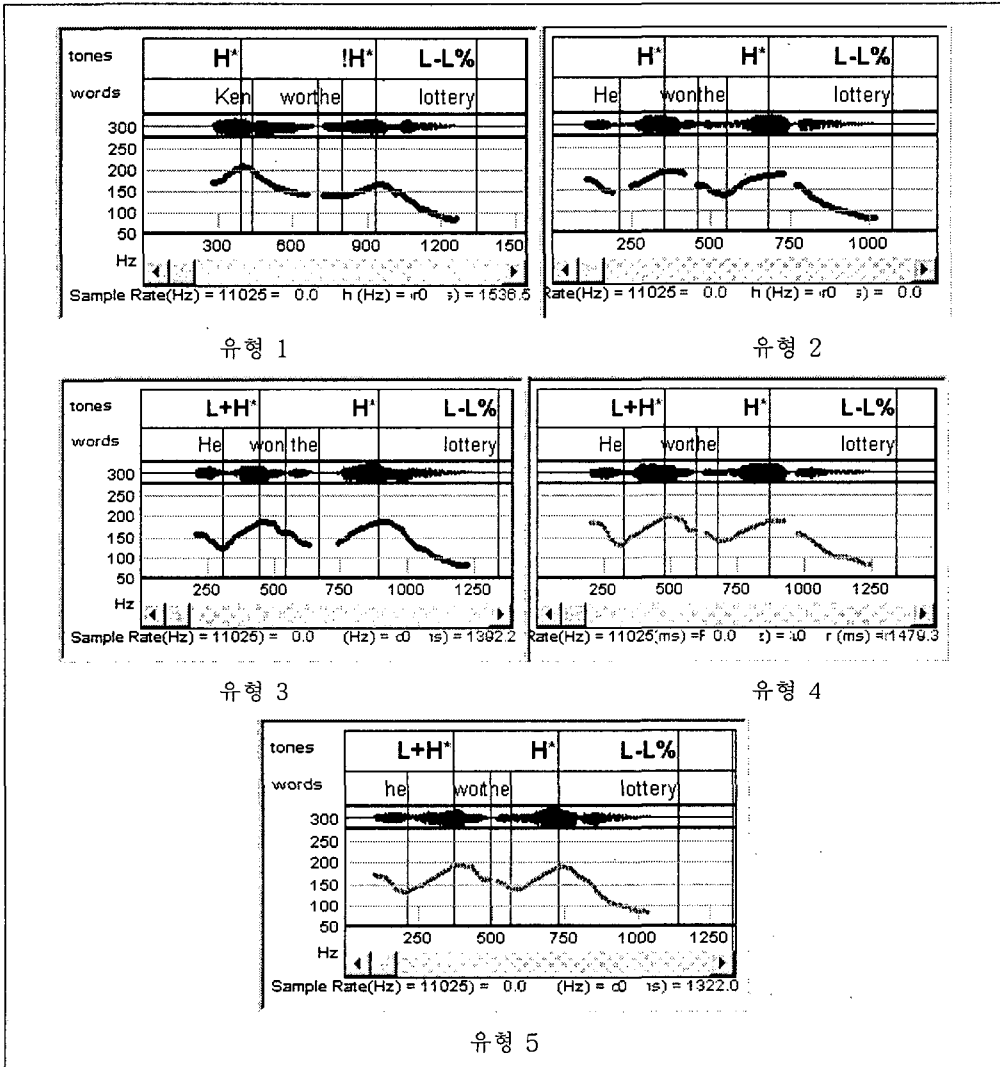


그림 3. 한국인 화자의 억양 곡선 (위에서 차례로 유형 1-5)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장의 초점과 정보구조에 따른 유형과는 상관없이 어휘적으로 동일한 문장에서 모든 내용에 H* 또는 L+H*를 부여하고 있다. 유형 1에서는 주어가 명사라서 주어에도 H*를 주었고 술어에는 H*를 주지 않았으며 마지막 보어에는 다시 H*를 부여하였다. 나머지 유형 2-5에서는 일관되게 술어와 보어에 H* 또는 L+H*를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3.1의 표 1에서 음영으로 처리한 피치 액센트 유형을 올바른 것으로 가정하고 한국인 화자 10 명의 발화 결과를 정리하면 그림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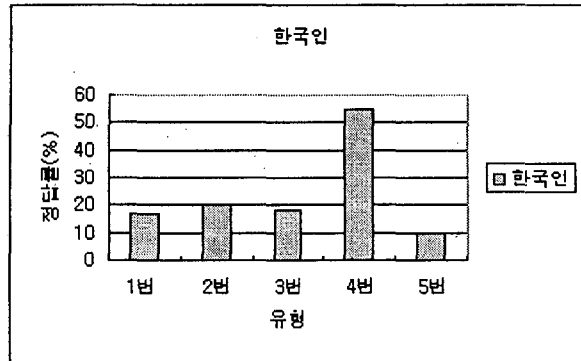


그림 4. 한국인 화자 발화 실험 1

유형 4에서 54.5%로 비교적 높은 정답률을 보이는 것 외에 유형 1과 2, 3, 5에서는 모두 20% 이하의 정답률을 보이고 있다. 유형 4에서 정답률이 54.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은 한국인 화자들이 모든 내용어에 피치 액센트를 부여하는 경향이 유형 4에 우연히 부합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실험 2 - 한국인 화자의 재실험

3.1 실험 방법

실험 1의 발화 실험 결과, 한국인은 상급수준의 화자들도 초점과 정보구조에 따른 피치액센트와 액센트 해지를 잘 실현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 수준의 화자는 토익 900점 이상(토플 600/250)을 획득한 4명과, 토익 895점으로 영어를 전공한 대학교 4학년 학생 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5명 중 4명이 영어가 전공인 학부 4학년 학생이거나 대학원 석사과정 생이었다. 한국인 피험자들이 초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인지, 각기 다른 유형의 질문이 유도하는 초점을 알고도 이를 억양으로 실현시키지 못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5명의 상급 수준의 화자들을 대상으로 재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1에 사용하였던 예문 중 5개의 예문만을 선택하여 실험 1과 동일한 방법으로 5가지 유형의 대화문을 구성하되, 실험 1과 달리 이러한 다섯 가지 유형의 대화문을 (5)와 같이 하나의 세트로 제시하여, 어휘적으로 동일한 답을 서로 다른 질문에 따라 의미가 통하도록 자연스럽게 읽어달라고 강조하였다.

3.2 실험 결과

실험 2에서 실험 문장을 한 세트로 보여줌으로써 피험자로 하여금 질문에 따라 의도적으로 억양을 구분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답률은 그다지 높아지지 않았다. 유형 1과 2, 5에서는 정답률이 다소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그 차이가 미미하고, 유형 3은 동일한 비율로, 유형 4에서는 오히려 정답률이 감소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정답률은 30% 내외에 머무르고 있다. 표 2와 표 3, 그림 5가 이러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표 2. 실험 2 결과

실험2	정답	총문항수	정답률(%)
유형 1	7	50	14
유형 2	16	50	32
유형 3	9	50	18
유형 4	17	50	34
유형 5	12	50	24

표 3. 상급 화자들의 실험 1과 실험 2 비교

비교		실험 1(%)	실험 2(%)
유형 1	10	14	
유형 2	25	32	
유형 3	18	18	
유형 4	58	34	
유형 5	14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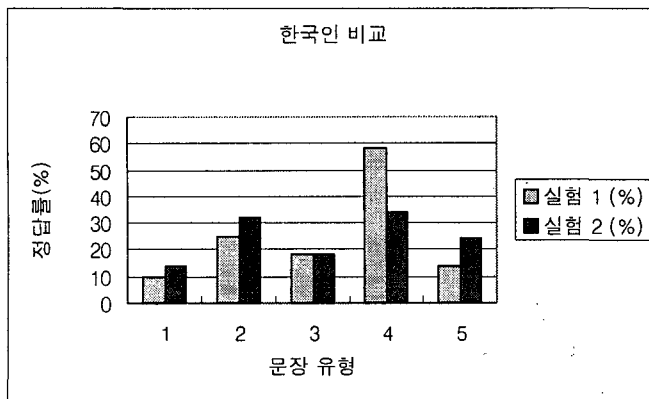


그림 5. 한국인 화자의 실험 1과 2 비교

위 실험 결과, 피험자들이 의도적으로 차이를 두고 문장의 억양을 실현한다고 해도 원어민과 같이 적절한 위치에 피치 액센트를 두지 못하며 신정보가 아닌 항목에 액센트 해지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한국인 화자들은 초점이 어느 곳에 오는지, 즉 어휘적으로 동일한 문장이 질문에 따라 어느 항목이 부각되어야 하는지는 알고 있어도 이를 억양으로 실현시키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함을 알 수 있다.

4. 실험 3 - 지각 실험

4.1 실험 방법

앞서 두 발화 실험 결과, 한국인 화자의 발화가 원어민 화자의 발화와 뚜렷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초점과 정보구조라는 측면에서 한국인 화자가 이 두 가지 요소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원어민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현하지 못할 경우 의사소통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원어민 화자를 대상으로 지각 실험을 실시하였다.

지각 실험의 자료로, 실험 1에서 얻은 원어민 화자의 발화 10 문장과 한국인 화자의 발화 20 문장을 선택하여 녹음하였는데, 한국인 화자의 발화는 실험 1과 2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

되었던 문장 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억양 패턴으로 선택하였다. 총 30 개의 문장을 원어민 화자에게 들려주고, '들려주는 각각의 문장은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다. 그 질문은 다음 중 어느 것일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청하였다. 실험 1에 참여하지 않은 미국인 화자 5 명을 피험자로 삼았다. 각 문장은 연이어 두 번씩 들려주었고, 피험자가 원할 경우 돌아가서 다시 들려주었다. 원어민 피험자에게 제시한 지각 실험의 문제는 다음의 예와 같다.

(6) (I baked these cookies.)

(H* H* ----- 유형 4)

- Who baked these cookies?
- You bought these cookies?
- What did you bake?
- What did you do yesterday?
- Where did you get these cookies?

(6)의 예문에서 괄호 부분은 피험자에게 제시하지 않았다. 슬어와 보어에 모두 H*가 부여된 이 문장은 유형 4의 문맥에서 나온 발화이므로 피험자는 광의 초점을 요구하는 질문 유형인 네 번째 질문을 선택해야 정답이 된다.

4.2 실험 결과

지각 실험 결과, 원어민 화자가 발화한 문장의 경우 대체로 높은 정답률을 보이고 있으나 한국인이 발화한 문장의 경우는 유형 3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 유형에서 비교적 낮은 정답률을 보이고 있다. 표 4와 그림 6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4. 원어민과 한국인 화자의 발화를 들려준 지각 실험 결과

원어민				한국인			
	정답	총문항수	정답률(%)		정답	총문항수	정답률(%)
유형 1	10	10	100	유형 1	6	20	30
유형 2	10	10	100	유형 2	1	20	5
유형 3	10	10	100	유형 3	17	20	85
유형 4	8	10	80	유형 4	9	20	45
유형 5	9	10	90	유형 5	0	2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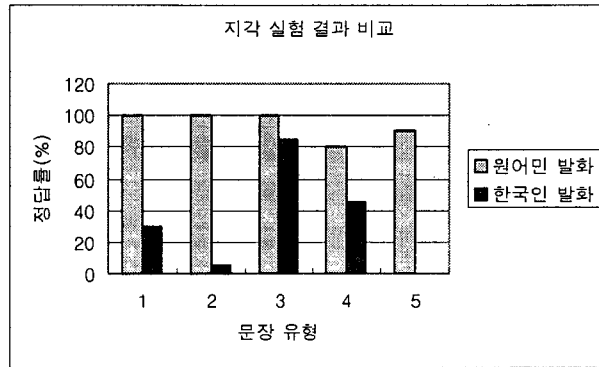


그림 6. 지각 실험 결과 비교

표 4에서 한국인과 원어민을 비교해 보면, 유형 3과 4를 제외한 유형 1, 2, 5에서는 한국인의 발화에 대한 정답률이 각각 30%, 5%, 0%로 원어민 발화의 100%에 가까운 정답률에 비해 현저히 떨어짐을 볼 수 있다. 유형 3과 4에서 높은 정답률을 보이는 것은, 한국인이 대체로 문장 유형에 관계없이 주어-술어-목적어 구조에 (H*) H* H*나 (H*) L* H*의 패턴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³⁾ 이 결과를 통해, 실험 1과 2에서 나타난 한국인 화자의 잘못된 억양 패턴은 실제 영어 담화에 혼란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요약 및 시사점

원어민과 한국인 화자의 발화를 실험한 첫 번째 발화 실험에서 원어민 화자는 협의 초점과 광의초점 그리고 광의초점이라 할 지라도 구정보가 되는 항목은 액센트 해지시키는 일정한 패턴을 유형 1과 2, 4, 5에서 90% 이상, 유형 3에서 70% 이상 올바르게 실현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반면 한국인 화자들은 유형 4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에서 모두 20% 미만의 수준으로 원어민 화자의 발화와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실험 1의 발화 실험에서 원어민 화자 중 한 화자가 유형 3의 문장에 일정하게 H* H*를 부여하여 술어가 구정보임에도 불구하고 H*를 부여한 경우가 26%에 이르고 있었다. 그리고 실험 3의 지각 실험에서 한국인이 술어와 보어에 모두 H*를 주어 발음한 것을 들려주었을 때 원어민 화자들은 이를 유형 4로 일관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 표를 보자.

발화시 유형(문항)	피치 액센트 패턴	유형 3으로 인식	유형 4로 인식
3 (8)	X H* H*	3	2
3 (17)	X H* H*	5	0
4 (1)	X H* H*	3	2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인의 발화가 유형 3이든 4이든 관계없이 술어와 보어에 모두 H*가 오면 원어민은 이를 유형 4보다는 유형 3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보어에 협의 초점이 온 경우에 구정보인 술어에 H*가 온 것을 과연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이 점은 이후에 더 많은 원어민 화자를 상대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상급 수준의 한국인 화자를 대상으로 한두 번째 발화 실험에서 주어진 담화 문맥에 맞게 의도적으로 차이를 두고 읽도록 하였을 때에도 피험자들은 유형별로 초점과 정보 구조에 맞는 억양을 그다지 성공적으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 1에서 얻은 원어민과 한국인 화자들의 발화를 원어민 피험자에게 들려준 지각 실험에서 원어민이 발화한 문장은 80% 이상 정답률을 보이는 반면 한국인 화자가 발화한 문장은 유형 3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영어에서 억양이 의미 변화를 야기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함을 고려할 때(Pierrehumbert and Hirschberg 1990), 영어교육에 있어서 화자에게 올바른 억양을 구현하게 하는 억양교육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초점과 정보구조가 억양패턴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지만 한국인 화자들에게 이러한 초점과 정보구조에 알맞은 억양구현을 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담화구조 내에서 문맥에 맞는 억양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 Beckman, M. and J. Hirschberg 1998. "The ToBI Annotation Conventions". <http://ling.ohio-state.edu/phonetics/ToBI/ToBI.6.html>
- Birch, S. and C. Clifton Jr. 1995. "Focus, Accent, and Argument Structure: Effects on Language Comprehension." *Language and Speech*, 38(4), 365-391.
- Bolinger, D. 1972. "Accent is Predictable (if you're a mind-reader)." *Language* 48, 633- 44.
- Ladd, D. R. 1996. *Intonational Phon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ierrehumbert, J., and J. Hirschberg. 1990. "The Meaning of Intonational Contours in the Interpretation of Discourse." P. R. Cohen, J. Morgan, and M. E. Pollock (ed.), *Intentions in Communication*, 271-311. Cambridge, MA: MIT Press.
- Selkirk, E. O. 1984. *Phonology and Syntax: The Relation between Sound and Structure*. Cambridge, MA: MIT Press
- Selkirk, E. O. 1994. Sentence Prosody: Intonation, Stress and Phrasing. J. Goldsmith (ed.), *Handbook of Phonological Theory*, 550-569. Oxford, U.K.: Blackwell.
- Terken, J. and J. Hirschberg. 1994. "Deaccentuation of Words Representing 'Given' Information: Effects of Persistence of Grammatical Function and Surface Position." *Language and Speech*, 37(2), 125-145.

접수일자: 2001. 4. 23.

게재결정: 2001. 6. 2.

▲ 엄혜영

경기도 용인시 남동 산 38-2

명지대학교 교양학부

Tel: +82-31-330-6231

E-mail: hyum@mju.ac.kr

▲ 이해숙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일반 대학원 영문과
Tel: +82-2-3290-1980
E-mail: rachel5030@hanmail.net

▲ 김기호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영문과
Tel: +82-2-3290-1440
Fax: +82-2-928-4145
E-mail: keehokim@korea.ac.kr

Appendix

다음은 실험 1의 발화실험에 사용한 실험 문장이며 실제 실험에서는 이를 섞어서 사용하였다.

1. a. A: Who walked the dog?
B: Anna walked the dog.
- b. A: Anna talked to the dog?
B: No, she walked the dog.
- c. A: What did Anna walk?
B: She walked the dog.
- d. A: What did Anna do yesterday?
B: She walked the dog.
- e. A: What did Anna do with her neighbor's dog?
B: She walked the dog.

2. a. A: Who won the marathon?
B: Esther won the marathon.
- b. A: Esther saw the marathon?
B: No, she won the marathon.
- c. A: What did Esther win?
B: She won the marathon.
- d. A: How did Esther spend her Thanksgiving?
B: She won the marathon.
- e. A: Did Esther enjoy the marathon?
B: She won the marathon.

3. a. A: Who painted the bedroom?
B: Lisa painted the bedroom.
- b. A: Lisa cleaned the bedroom?
B: No, she painted the bedroom.
- c. A: What did Lisa paint?
B: She painted the bedroom.
- d. A: What did Lisa do last weekend?
B: She painted the bedroom.
- e. A: How did Lisa fix up her bedroom?
B: She painted the bedroom.

4. a. A: Who redid the kitchen?
 B: Jeff redid the kitchen.
- b. A: Jeff recleaned the kitchen?
 B: No, he redid the kitchen.
- c. A: What did Jeff redid?
 B: He redid the kitchen.
- d. A: So Jeff bought a new house?
 B: Yes, and then he redid the kitchen.
- e. A: I heard Jeff had an interior decorator in his kitchen.
 B: Yes, he redid the kitchen.
5. a. A: Who baked these cookies?
 B: I baked these cookies.
- b. A: You bought these cookies?
 B: No, I baked these cookies.
- c. A: What did you bake?
 B: I baked these cookies.
- d. A: What did you do while you were at your grandma's?
 B: I baked these cookies.
- e. A: Where did you get these cookies?
 B: I baked these cookies.
6. a. A: Who toured Hungary?
 B: Gary toured Hungary.
- b. A: Gary lived in Hungary?
 B: No, he toured Hungary.
- c. A: Where did Gary tour?
 B: He toured Hungary.
- d. A: How did Gary spend Sprind Break?
 B: Gary toured Hungary.
- e. A: What did Gary do in Hungary?
 B: Gary toured Hungary.
7. a. A: Who won the lottery?
 B: Ken won the lottery.
- b. A: Ken wants a lottery ticket?
 B: Not any more - he won the lottery.
- c. A: What did Ken win?

- B: He won the lottery.
- d. A: Why is Ken smiling like that?
B: He won the lottery.
- e. A: What did Ken say about the lottery?
B: He said he won the lottery.
8. a. A: Who's moving to Iowa.
B: Jack's moving to Iowa.
- b. A: Jack's visiting Iowa?
B: No, he's moving to Iowa.
- c. A: Where's Jack moving to?
B: He's moving to Iowa.
- d. A: Why is Jack so sad?
B: He's moving to Iowa.
- e. A: What does Jack do in Iowa?
B: Nothing yet - he's moving to Iowa.
9. a. A: Who bought that book?
B: Mary bought that book.
- b. A: Mary borrowed that book?
B: No, she bought that book.
- c. A: What did Mary buy?
B: She bought that book.
- d. A: What did Mary do at the mall?
B: She bought that book.
- e. A: How did Mary get that book?
B: She bought that book.
10. a. A: Who trained the horses?
B: Robert trained the horses.
- b. A: Robert traded the horses?
B: No, he trained the horses.
- c. A: What did Robert train?
B: He trained the horses?
- d. A: What did Robert do at the farm?
B: He trained the horses.
- e. A: What did Robert do with the horses at the farm?
B: He trained the horses.